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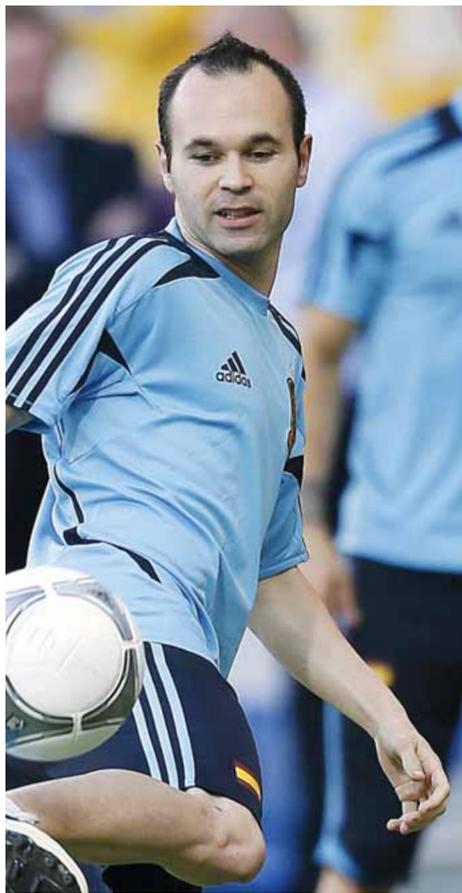
포르투갈 '호날두'



아르헨티나 '메시'



브라질 '네이마르'



스페인 '이니에스타'

'축구의 땅' 별들의 전쟁 ... "골든볼을 잡아라"

〈MVP〉

축구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인 동시에 세계 축구의 별들이 총출동해 겨루는 스타워즈의 무대다.

올 여름 축구의 땅 브라질을 뜨겁게 달굴 최고의 선수는 누가 될까? 우승경쟁 만큼 뜨거운 골든볼(MVP) 경쟁엔 영원한 라이벌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신성 네이마르 다 실바(브라질), 축구의 마법사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의 4파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화룡점정'은 월드컵에서 =현대축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번호는 7번이다. 발롱도르의 사나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번이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특급 골잡이 호날두는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9번'과 달리 측면을 활동 무대로 삼아 문전까지 파고들어 득점을 노리는 '7번형 공격수'.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31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7골로 역대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하며 소속팀 레알마드리드에 10번째 빅이적컵을 안겨주었다.

호날두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했지만 1골밖에 기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라이벌 메시지를 제치고 5년 만에 FIFA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영원한 2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어내 자신감이 넘친다. 스웨덴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세골을 터뜨리며 "브라질은 우리를 기다린다"며 큰소리를 친 호

득점기계 호날두 "월드컵도 나의 무대"

절치부심 메시 "우승으로 최고 증명"

날두가 득점왕과 골든볼을 동시에 수상할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펠레 vs 마라도나 후계자 대결 = 이번 브라질월드컵은 펠레와 마라도나 후계자들의 대결로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네이마르와 메시가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베티ng업체들이 내놓은 우승 후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네 나라. 4개국은 조 1위로 16강에 오를 경우 8강전까지는 만나지 않아 브라질과 독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준결승을 벌이고 네이마르와 메시가 결승에서 만나는 꿈같은 대진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네이마르는 메시와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한다. 메시는 현재 91골로 최다 골 기록, 4회 연속 발롱도르 수상, 21경기 33골로 역대 최다경기 연속골에 빛나는 '살아 있는 축구'의 신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9살의 나이로 독일 월드컵을 통해 처음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 메시는 1골 1도움을

	메시 (아르헨티나)	호날두 (포르투갈)	네이마르 (브라질)	이니에스타 (스페인)
등번호	10	7	10	6
출생년도	1987년	1985년	1992년	1984년
키	169cm	186.5cm	174cm	170cm
체중	67kg	84.5kg	65kg	65kg
소속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포지션	FW	FW	FW	MF
프로데뷔	2004년	2001년	2009년	2002년
2014 시즌득점	28골	31골	9골	1골
연봉	280억원	238억원	102억원	173억원
수상	2009·2010·2011·2012 발롱도르	2008·2013 발롱도르	2012 브라질리코 골든슈 2013 컨페데레이션컵 골든볼	2012 유로MVP 2012 유럽 최우수 선수상 2013 라리가 도움왕
캐릭터	드리블의 마술사 폭발적 득점력	스피드와 개인기 폭발적 득점력	화려한 개인기 빠른 스피드	소리없는 지배자 컨트롤 마법사
성격	수줍음 타지만 명랑	겁 없고 강한 멘탈	낙천적	내성적

기록하는데 그쳐 아르헨티나가 8강에서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마라도나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는 팀의 주장으로 뛰었지만 득점 없이 8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월드컵만 나서면 작아지는 선수'라는 편견을 들어야 했다.

메시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훌륭한 선수로 기억될 수 없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를 최고라 말하고 싶지 않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메시는 올해로 27살이다. 어쩌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우승을 노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브라질 대표팀의 간판 네

신성 네이마르 "기대주 넘어 왕별로 뜬다"

마법사 이니에스타 "난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이마르. 지난해 컨페데레이션 컵에서 4골 2도움을 올리며 대회 MVP에 오른 네이마르는 펠레가 "메시를 뛰어넘는 완벽한 선수"라고 극찬할 정도로 브라질에서 인기와 기대감이 넘다르다.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현란한 드리블, 정확한 슈팅 감각, 박스 안쪽에서의 영리한 움직임은 팬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네이마르는 최근 ESPN이 선정한 '22세 이하 주요선수' 명단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손흥민은 네 번째. 아직 메시나 호날두와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마르가 이번 대회를 통해 '브라질의 새별'을 넘어 '세계의 왕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제로톱 전술의 핵 =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 유로 2012 우승 그리고 현재 FIFA 랭킹 1위 스페인은 브라질과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다. 스페인의 특징은 '티키타카'로 불리는 패스와 점유율 축구. 골키퍼에서 최전방까지 안정적인면서도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점유율을

극대화 하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축구를 구사한다. 이러한 스페인의 패스축구는 강력한 미드필더 이니에스타가 있어 가능하다.

"메시 없이는 골을 넣을 수 없지만 이니에스타 없이는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클럽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다.

이니에스타는 현란한 드리블과 볼 터치, 넓은 시야, 정확한 패스 센스를 갖추고 지적인 경기를 펼치는 멀티플레이어다. 또한 남아공월드컵 결승전 결승골처럼 중요 순간마다 골을 터뜨리는 해설사이기도 하다. 이니에스타는 지난 30일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도 해킴골을 넣으며 스페인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뒤 "우리는 여전히 우승에 굶주려 있다. 이번 월드컵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고 말했다.

◇4강 이상의 성적 올려야 = 월드컵 골든볼은 팀이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 2006 독일월드컵에선 준우승팀 프랑스의 지단이, 2010 남아공월드컵에선 4위 우루과이 열정의 공격수 포를란이 차지했다.

전차군단 독일의 엔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독일 최고의 재능을 가진 마리오 괴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 이탈리아의 악동 마리오 발로텔리, 월드컵 우승으로 발롱도르를 욕심내고 있는 스페인 세르히오 라모스 등의 불꽃튀는 대결도 브라질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